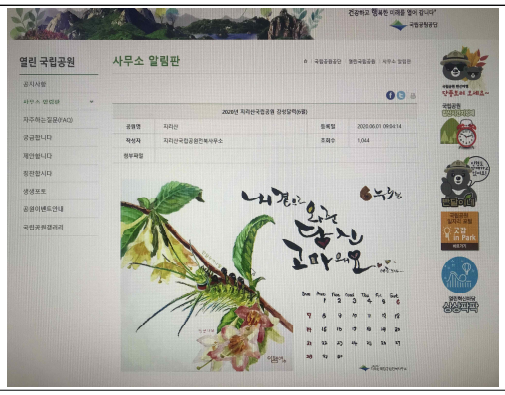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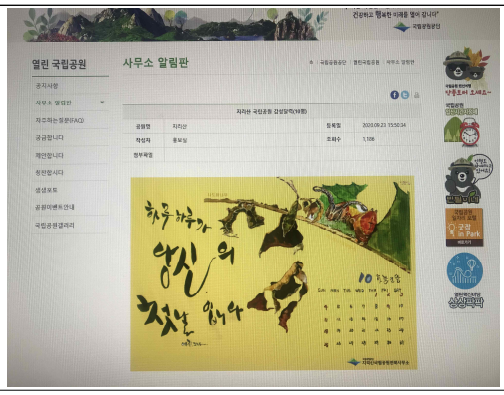
3. 감성달력

개발자	임해영(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뱀사골 사계의 아름다움을 달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활용대상	유아 ~ 성인
활용시기	사계절
준비물	없음
소요시간	자유
제작비용	10만원



	
홈페이지에 개재된 6월 생태달력	홈페이지에 개재된 10월 생태달력

운영방법

1. 지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감성달력을 클릭한다.
3. 감상한다.

향후방향

지리산의 사계로 확장한다.

참고내용

- 뱀사골의 유래(이무기가 죽은 골짜기 뱀사골)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 년 전 뱀사골 입구에 송림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송림사에서는 매년 칠월 백중날(음력 7월 15일)에 스님 한 명을 뽑아 그날 밤 신선바위에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되면 매번 스님이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그 스님이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이 이야기를 기이하게 생각하여 그 해에 뽑힌 스님 옷자락에 독을 묻혔습니다. 날이 밝은 뒤 사람들은 신선바위로 향하였는데 바위에는 이무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라진 스님들은 이무기의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계곡의 이름은 이무기 즉, 뱀이 죽은 골짜기라는 뜻의 뱀사골이 되었습니다.

주의사항